

# “미래 대비 공정·혁신” 2028 대입 개편안 “어차피 줄세우기”

교육부, 광주서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

광주·전남 학부모들, 선택과목 폐지·내신 5등급 전환 우려  
교육부 “변별력 유지...과목 쏠림·문과 침공 문제 사라질 것”

광주·전남지역 학부모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선택과목을 없애고 고교 내신을 5등급제로 전환하는 '2028 대입 개편 시안'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교육부는 9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28 대입 개편 시안에 대한 '찾아가는 학부모 정책설명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현 중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내신평가 체계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개편하는 내용의 대입 개편 시안을 지난달 10일 발표했다. 수학 과목에서는 미적분Ⅱ와 기하 과목을 수학 영역 출제 범위에서 제외한다.

교육부는 내신 5등급제 도입에 따른 변별력 약화, 내신 유리한 과목 쏠림,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등 교육계의 우려에 대해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신 등급제 변화에도 변별력은 현행처럼 유지된다”면서 “문과든 이과든 시험문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현상이 없어지고 문과집중 문제도 사라진다”고 밝혔다.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에 대해서는 “모든 과목에 똑같은 5등급제, 절대·상대평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특정 선택과목에 쏠리지 않을 것”이라며 “개편 시안은 ‘공정’, ‘안정’의 기조로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융합’, ‘혁신’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심화수학’ 영역을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모든 학생에게 심화수학을 적용한다는 것은 지나치지만 이공계 인재를 위해 도입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만약 도입하더라도 절대평가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의 현장 분위기는 싸늘했다. 자신을 아이 두 명을 둔 학부모라고 소개한 A씨는 “학생들을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으로 내몰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고교학점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또다시 학생들을 줄세우는 개편 시안을 내놓았다”면서 “학생들이 똑같은 문제로 수능을 보는 것만이 공정한가”라고 반문했다.

교육부 정성훈 인재선발제도 과장은 이에 대해 “절대평가로 간다고 해도 당장 해소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5등급제를 도입함으로써 조금씩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학부모 B씨는 “사전질의에서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일반고에 유리해졌다고 답변했는데 오히려 특목고가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 과장은 “5등급제가 도입됐을 때 A등급은 10%, B등급은 24%를 차지한다. 특목고나 자사고는 학생 간 성적차가 크지 않다. 따라서 일반고에서 A등급에 들어가는 것이 특목고나 자사고보다는 용이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등은 이날 설명회가 열린



9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마다플라자 호텔 4층 대연회장서 학부모들이 교육부가 개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학부모 설명회'에 참여해 설명을 듣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라마다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입 개편 시안 철폐'를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신소영 정책팀장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계기로 입시경쟁체제, 문제풀이 훈련, 사교육 등 교육의 난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하지만 이번 개편시안은 기존 상대평가하던 과목은 물론 절대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던 과목들마저 모두

상대평가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학부모에게 진로·적성을 고려해 배우고 싶은 과목을 마음껏 선택하러더니 결국 등수로 줄 세우겠다는 뜻”이라며 “특히 1개 반 학생이 소수인 지방에서 상대평가를 시행하면 그 누가 지역 소도시에 남아 아이를 키우려하겠는가. 정부가 입시 안정성에 눈이 멀어 상대평가 확대라는 지역

소멸의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목포지역 학부모는 “상대평가는 아이들을 줄세워 대학 입시에 맞춘 교육일 뿐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 과거로 회귀할 것이 아니라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교육부는 당장 대입 개편 시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수험표·신분증 필수...전자기기 절대 불가

수능 D-6 반입금지 물품 확인을

매년 수능 때마다 반입금지 물품을 휴대해 낭패를 보는 수험생들이 많다. 수험표를 준비하지 않아 허둥대는 수험생도 해마다 나온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6일)을 6일 앞둔 10일, 반드시 챙겨야 할 물품을 점검해본다.

가장 중요한 수험표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을 쓸 수 있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에 대비해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본으로 인화한 비상용 사진 1매를 추가로 준비하면 좋다.

수능 당일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경우 오전 8시까지 시험장 시험관리본부에 사진과 함께 신분증을 제출하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수능 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험생에게 사프

펜슬과 사인펜을 일괄 지급하지만, 이밖의 필기도구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추가로 준비할 수 있다.

다만 사프심은 휴대할 수 있지만, 개인 사프는 휴대하면 안 된다.

시험실에는 시계가 없으므로 휴대가 가능한 아날로그 시계를 준비하면 좋다. 단 통신과 결제 가능,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가능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험장에 절대로 반입하면 안 되는 물품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카메라 렌,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이다.

부득이하게 휴대전화 등을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전원을 끈 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 출국·체류 때 허가 받아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은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거나 국외에 계속 체류하고자 할 경우 여권의 유효기관과 별개로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 중 내년에 25세(1999년생)의 병역의무자가 유학이나 국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2024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한다면 2024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방문·팩스·병무청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는 반드시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여행목적별로 허가대상·기간 및 구비서류 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기간이 유효한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 또는 국외체류 시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기간 동안만 국외에 체류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킹코브라 독 채취는 동물학대”

### 광주지법, 독 채취 영상 온라인 게재 30대에 벌금형

킹코브라 독을 채취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해림)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광주시 북구 주거지에서 2차례에 걸쳐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킹코브라의 입을 억지로 벌린 후 독을 채취하고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킹코브라의 머리를 잡아 입을 벌리고 고무장갑을 씌운 컵의 모서리에 코브라의 입과

독니를 문질러 독을 채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취장면도 영상으로 찍어 PC방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의 신체를 손상해서는 안되고, 체액 채취나 채취를 위한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A씨가 독목물 채취영상을 찍은 킹코브라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재판부는 “A씨가 킹코브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아직도 봉안당에 보관하십니까?

이제는 자연친화 **수목장**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 장점**

- 자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친환경** 공간을 만듭니다.
- 우리 수목장은 **낮은 관리비와 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365일 관리되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의 추모**가 가능합니다.
- 묘지 관리에 대한 **후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광주시내권에서 20분 이내 편리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 수목장 무료 안치**

지역사회의 상생과 복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목장 무료안치를** 진행합니다.

1. 광주광역시민(인근까지 인정)
2. 본 단체 회원에 가입한 분에 한함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광주 수목장**

**24시간 연중무휴**  
**☎ 062-449-4446**